

석사학위논문

청년창업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0년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이 연 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주형근

청년창업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중심으로-

A Study on Youth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youth-only startup funds

2020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이 연 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주형근

청년창업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중심으로－

A Study on Youth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youth-only startup funds

위 논문을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이 연 호

이연호의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청년창업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 & 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이 연 호

그동안 정책자금은 거시적 분석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개별사업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정책자금의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청년전용창업자금’에 한정하여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실용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적 제시와 연구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3가지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다. 먼저 청년창업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청년창업기업의 특징은 보유자원, 기술자원의 관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창업기업의 성과분석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분석하고, 재무적 성과는 재무제표를 이용한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을 타 지원자금과 비교 방식으로 조사

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개별사업단위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타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지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동 자금은 경영자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청년창업자에게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창업기업에게는 외부적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케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창업기업에게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를 근거로 수행하였다.

【주요어】 : 중소기업정책자금,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자, 창업자, 창업기업, 경영성과, 중소기업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기	1
1)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제기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중소기업 현황	5
1) 중소기업의 정의	5
2) 중소기업 기준의 변화	6
3) 중소기업 현황	7
제 2 절 창업의 정의 및 핵심요소	7
1) 창업의 정의	7
2) 창업의 핵심요소	9
3) 창업단계별 자금도입 절차	11
제 3 절 경영성과	14
제 3 장 정책자금의 현황과 추진체계	17
제 1 절 정책자금의 필요성	17
제 2 절 정책자금의 현황 및 지원체계	20

제 3 절 청년전용창업자금 현황	25
1)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개요	25
2)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실적	28
제 4 절 정책제언	31
제 4 장 정책자금 분석	38
제 1 절 청년창업자의 특성 분석	38
제 2 절 창업기업의 특징적 요소	42
제 3 절 경영성과 분석	44
제 5 장 결 론	48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48
1) 연구결과 요약	48
2) 연구의 시사점	49
제 2 절 한계점 및 정책적 제언	50
참 고 문 헌	52
ABSTRACT	55

표 목 차

[표 3-1] 주요국 창업생태계 지표 비교	19
[표 3-2] '20년 자금별 예산 현황	23
[표 3-3] 정책자금(담보별)지원실적 현황	23
[표 3-4] 정책자금(업종별)지원현황	24
[표 3-5] 중진공 vs 은행대출 비교	25
[표 3-6] 금리/상환기간에 대한 개선 실적	26
[표 3-7] 청년전용창업자금 추진 절차도	27
[표 3-8]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금액	28
[표 3-9]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업체수 및 대출선정 경쟁률	29
[표 3-10] 국가 총투자증가율·가계소득증가율·소비지출증가율	31
[표 3-11] Start-up NEST(신용보증기금) 지원내용	34
[표 3-12] 청년 창업자금지원사업 특성 비교	33
[표 3-13] Start-up NEST(신용보증기금) 운영실적(2017년말 기준)	35
[표 4-1]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재무성과 비교	46

그림 목 차

[그림 2-1] 자금의 순환	11
[그림 2-2]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	13
[그림 3-1] 정책자금 융자체계도	21
[그림 3-2] 연령대별 창업 비중 추이	3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1) 문제제기

최근 창업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누구도 미리 내다 보지 못한 빠른 기술 혁명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한다.¹⁾ 지금 전 세계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계속하여 쏟아내고 있다. 국가별로는 제도적 개선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은 한계를 타계할 수 없다는 생각에²⁾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바로 혁신의 주체로 시장을 선도하는 고용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우리는 산업구조 고도화 추세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높은 시기를 겪어 왔다. 중소기업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저변 형성에도 높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내실 있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요 기술개발의 원천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전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와 더불어 산업의 경기 대응력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충족,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과 장려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1) Klaus Schwab/ 편역,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제4차 산업혁명,

2) 이병권. (2015). 『창업동기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미래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량의 데이터가 모든 산업에 걸쳐 눈 깜짝 할 시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 우리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기사와의 세기의 대결을 보지 않았는가. 이러한 빠른 변화에서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정부는 정책 금융을 비롯한 지원사업에 더욱 신뢰 할 만 한 정책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예비창업자와 기 창업기업 모두에게 정책자금지원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사업에서 세부적이고 다양한 개별사업단위로 단계적 연계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자금 성과분석 연구가 정책자금 전반의 거시적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개별사업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을 정책자금의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판단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 중 청년전용창업자금에 한정하여 효과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의 유무를 확인하고 개별사업단위에서 보다 실용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7년 미만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창업자금에서 지난 '12년 새로운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와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특화된 개별사업 단위의 정책자금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는 청년 창업촉진 및 성공률 제고와 창업초기에 발생하는 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탄생된 제도이다. 동 자금은 장기, 저리의 융자형태의 정책금융의 일환인 정책자금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창업생태계의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이라는 선순환을 조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시작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은 생계형 창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년층의 창업은 창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성장에 따른 단계별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청

년층의 창업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청년층은 창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금융권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의 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창업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책자금으로서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예비창업자와 3년 미만의 창업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선행 연구자들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창업자와 창업기업, 환경 요소가 청년전용창업자금에 대한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연구하였다. 또한 청년전용창업자금에 대한 시간적 범위는 ‘12년에서 ’19년에 지원된 기업으로 한정하고 지원성과는 중진공을 통해 용자가 이루어진 이후의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재무제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자료에서 도출된 청년창업자의 특성으로 경영자의 성취욕구, 독창성, 네트워크를 주요소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창업기업의 특징에서는 보유자원, 기술자원으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지원연계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문헌적 근거와 선행 연구 자료들을 수집·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 핵심요소로서 중소기업의 현황, 창업의 개념 등을 살펴보고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는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을 중심으로 ‘12년부터 ’18년까지로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여 중진공에서 수집한 재무제표 분석 자료를 활용 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1장 서론은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은 창업에 대한 정의와 창업기

업의 범위의 해석이 되는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정책자금의 현황과 추진체제로 정책자금의 현황 및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개요, 지원실적을 조사 하였다. 제 4장은 정책자금에 대한 분석과 경영자의 특성, 창업기업의 특징으로 주제별로 정책자금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 결론은 연구결과 요약과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의 연구방향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책금융이 창업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중소기업 현황

1)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이라 함은 기업의 규모 면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에 속하는 기업이지만 어떠한 범위의 규모에 속하는 기업만을 중소기업이라 하는 것은 아니다”³⁾.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정의가 주로 양적인 측면에 의해 적용되고 있으나 정책적인 면에서는 질적인 정의가 대체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⁴⁾. 현재는 양적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라도 경영의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은 대기업의 분신으로 보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정의를 미국에서는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경영되는 기업이거나 당해 사업에서 지배적이 아닌 기업, 으로 중소기업청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하여 규정하고 있다.⁵⁾ 대만은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업,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으로 별도로 정하는 규모기준에 적합한 기업” 등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경제적 정의는 먼저, 전국에 걸쳐 결정자가 많으며 판매 제품의 가격, 총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로서 경영자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없이 사실상 주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독립적인 기업이다. 아울러 기업의 소유자로서 경영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경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2015)

4) Xu Yan, 한국중소기업의 중국진출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례연구(2011)

5) 김용남, 중소기업보호법제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2005)

2) 중소기업 기준의 변화

우리나라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 것은 1961년 7월 에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을 근거로 할 것이다. 당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 종업원 5인 이상 100인 이하」, 「광공업은 200인 이하」로 「총자산 액은 2,000만원 이하」로 규정 하였다. 종래의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보호와 지원 위주로 되어 있었으나 WTO 체제의 출범 등에 따른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탄생으로 중소기업이 자율과 경쟁에 의한 자립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⁶⁾ 정책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와 자산의 규모를 비롯한 양적인 기준 이외에 소유와 경영에 있어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기업으로 실질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국제화·개방화·자율화 등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도록 자동화·국제화 관련의 중소기업 시책을 규정 하여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을 유형별로 통합·분류하고⁷⁾ 체계화·단순화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등과 개인사업자)」⁸⁾ 중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을 기준으로 한다. 규모기준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고 평균매출액이 업종에 따른 규모(400억 원~1,500억원)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다. 독립성 기준을 정함에 있어 먼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시켰다. 또한 자산총액 5,000억원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도 역시 중소기업에서 제외 하였다. 다음으로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출자

⁶⁾ ,기업은행조사부, 중소기업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과 그 주요내용(1995)

⁷⁾ 이상한, 인터넷 중개상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창업 및 유통전략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⁸⁾ 김성철. (2015)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임파워먼트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율에 해당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업종별로 400억원~1,500억원)을 미충족하는 기업의 경우도 제외 시켰다⁹⁾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정함에 있어 개별 정책별로 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시행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6조 및 제 67조에 따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업시행 공고로 시작된다.

3) 중소기업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통계 자료에 의하면, '17년말 기준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총 3,133천개로, 전국 3,137개 사업체 수의 99.89%이다. 중소기업 근무종업원수는 15,528천명으로 전 산업 종사자 수인 17,294천명 대비 89.78%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성장과 발전에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창업 활성화 관련 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규제 완화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법을 완화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실패한 경영자가 또 다시 재기를 통한 창업을 시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 2 절 창업의 정의 및 핵심요소

1) 창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창업((創業, start-up)이란 '새로운 업(業)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에 대한 정의에 있어 창업이란, '창업가(創業家, entrepreneur)', 혹

⁹⁾ 금융지원제도 안내, 금융감독원 발간(2017.6)

은 ‘창업가정신(創業家情神, entrepreneurship)’에서 가리키는 창업으로 ‘새로운 사업의 시작’, 혹은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뜻하는 사전적 의미 외에 기존 조직 내에서의 제품, 기술, 생산 공정, 조직 구조 등의 개선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강병오, 2011)

Schumpeter(1984)는 창업에 대하여 “점진적인 부를 창조 하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부는 재산과 시간, 그리고 스스로의 미래를 담보하며 위험 등을 극복하려는 사람에 의해 창조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나 제품들이 독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원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 줘야만 한다.”고 정의하였다(조중연,2016)

또한, Drucker(1985)는 창업이란 새로운 부를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모든 기존의 자원들을 투입하는 혁신적인 행위.¹⁰⁾라고 정의하였다.(남시태,2018)

Hisrich 와 Brush(1985)"창업에 대하여 창업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 및 심리적 위험, 재정적 위험 등을 감수“한다고 하였으며, ”모든 노력과 시간 등을 투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자신의 독립감과 경제적인 보상, 그리고 그를 통해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으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남시태, 2018)

창업의 법률적 의미로는 기존 영위하던 사업을 증여 또는 상속 그리고 합병 및 권한의 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승계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 창업(start-up)하는 것을 말한다.(조중연, 2016)업종을 추가하거나 조직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나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립하는 것으로서, 고용창출 및 신규투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천기호, 2019) 창업으로 인정 된다. 그리고 분류 기준에 따라 창업의 유형은 법인과 개인, 공동창업과 1인 창업,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창업으로 하이테크(high-tech)와 로우테크(low-tech)의 창업,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자영업 창업 및 벤처창업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조중연, 2016).

¹⁰⁾ , 중소기업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준비정도를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2018)

2) 창업의 핵심요소

창업에 있어 사람, 사업아이디어(기술, 제품, 서비스), 시장, 자본의 네 가지를 창업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조중연, 2016, 인용). 결국 우수한 투입 요소들의 합리적인 결합에 의해서 훌륭한 기업의 탄생이 가능하게 된다(박정기, 2005).

누구나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10명의 창업자 중 5명만이 남는 것이 창업의 현실이다. 성공하는 창업은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관리의 대상은 사람, 아이템, 시장(고객)과 자본(자금)이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관리하는 힘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자기 노력에서 체득 된다.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히 배우는 자세로 준비해야 실패가 없다(신준상, 나도성, 2016).

창업의 핵심요소 첫 번째는 사람(경영자)이다. 모든 일은 추진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고 그 주체는 주어진 일에 따라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팀으로 일을 수행 한다. 그리고 수행하는 주체가 어떠한 능력, 열의를 가지고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고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창업자 또는 경영자는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실행을 이끌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에 창업자인 경영자는 가장 중요한 창업의 핵심이며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창업의 성패가 좌우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창업아이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다. 특히 예전의 사회경험 또는 직장에서의 경험이라 하겠다.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험 지식은 그 분야의 기술이나 제품, 회사에 대해 정통하게 만든다. 그리고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예측이 가능하다. 경험은 혜안(insight)을 키우는 자산이다. 즉 창업자의 과거의 경험은 모두 현재를 위한 훌륭한 ‘창업 준비 학교’¹¹⁾인 것이다.

11) , 나도성의 신나는 창업스쿨p66에서 인용

그렇다고 전문성이나 해안은 경험에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험이 없어도 경험을 한 것처럼 해안을 찾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몰입(engagement)이다. 깊은 몰입은 통찰력을 만들어 준다. 오히려 몰입 없는 경험은 저주이다. 이러한 경험과 몰입을 통해 자신만의 영역, 노하우(know-how)는 경쟁력이 된다. 창업자인 경영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트렌드와 타이밍이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시장이 요구하는 트렌드를 보이는 때가 아니라 내가 창업을 위한 준비가 끝났을 때이다.

창업에서 핵심요소 두 번째는 창업아이템(제품, 서비스,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창업아이템이란, 제품, 서비스, 기술이다. 모든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는다. 따라서 창업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나는 어떠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일 것이다. 가치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내가 제공하는 가치는 기존 시장에서 아직 충족시켜 주지 못했거나 고객이 그동안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던 가치여야 한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다. 욕구는 끝없이 진화한다. 창업아이템은 끝없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검증이 필요하다. 어렵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품을 만들어 마케팅 시작단계에서 동일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제품판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 회사의 수명은 거기서 끝이다. 그래서 창업아이템이 결정되면 수시로 관련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검토 해야 한다.

다음으로 핵심요소 세 번째는 시장(고객)이다. 사업은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고객이란 창업자가 제공하는 아이템을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는 사람이다. 시장이란 고객의 집단이다. 창업자는 고객을 집단으로만 바라보려고 한다. 고객은 살아있는 실상이며, 숫자나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창업자는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으로 가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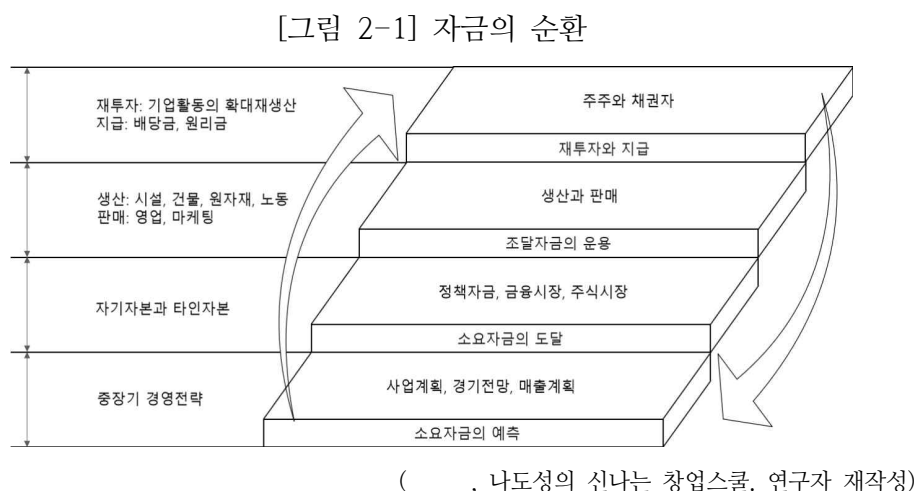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창업의 핵심요소 네 번째는 자본(자금)으로 창업의 3요소라고도 한다. 보통은 창업자, 아이템, 그리고 자본(자금)이다. 자본(자금)은 기업을 유

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람에 비유 한다면 기업의 자금은 사람에게 있어 혈액이라 할 수 있다. 자금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창업자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늘 경영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금은 순환해야 한다. 경영이란 자금을 순환시키는 모든 활동이다. 경영자는 경기를 전망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 하고, 이를 투입하여 건물, 기계, 설비를 구입한다. 투입한 자원을 통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원금과 이익을 취하면 일부는 다시 생산에 재투자하고 일부는 주주나 채무자에게 배당금 또는 원리금으로 돌려준다. 새로운 투자는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한다. 이는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계속되는 순환 과정에서 한 순간에라도 자금이 부족하여 흐름이 끊기거나 지체 되면 최후에는 부도로 이어지게 된다.

3) 창업단계별 자금도입 절차

아래의 그림은 자금의 순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창업에서 현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 있다. 경영자가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움직이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자는 항상 변하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수시로 경영방침을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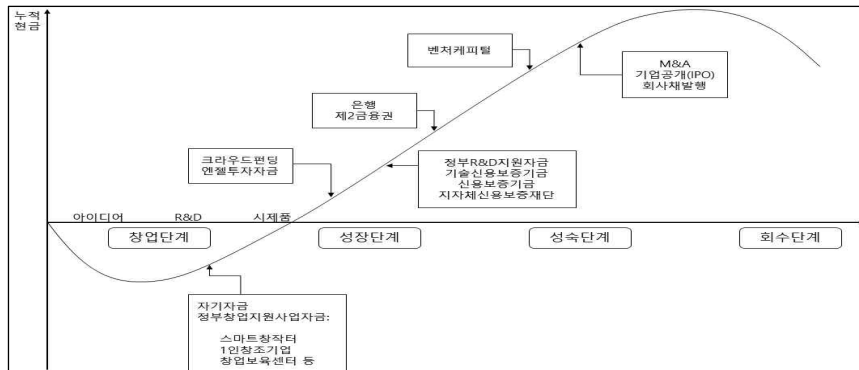
해 나가야 한다. 시장이 불확실할 때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현금 보유를 늘린다. 때로는 수익을 포기하고 현금흐름을 양호하게 끌고 가기도 한다. 현금은행장에 기록되는 이익보다 훨씬 큰 힘이 있다. 현금이란 당장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손익은 합리적인 가정이 흔들리면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면 외상매출금은 고스란히 손실로 바뀐다. 초기 창업기업은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영환경이 악화 될수록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그리고 시설 등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자금의 예측과 조달을 치밀하게 계획 하여야 한다.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한다면 경영목표나 투자계획을 즉시 축소한다.

경영자는 사업시작 이후에는 신용거래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현금유입은 최대한 늘리고 현금유출은 최소로 하는 지속적인 현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초기창업자금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은 운영자금을 포함해 자금을 넉넉히 준비 한다. 창업자금이 부족하면 정책자금 등 대출을 받는다. 다만, 대출 금액이 전체 비용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안전하다. 만약 50%이상 대출이 필요하다면 창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부정책금융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제도가 많다. 기업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제도를 이용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본금에 대해 용자가 아닌 투자개념으로 접근해서 창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여 주고자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지원정책을 만들었다. 중소기업육성은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생태계를 구성하고, 생태계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이 작동한다. 따라서 더욱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유니콘기업¹²⁾의 탄생이 정책의 목표는 아니지만 기대 또한 크다. 아래의 그림은 창업기업이 성장과정에 있어 각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¹²⁾ (unicorn)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약 10억 달러(약 1조원)이상의 비상장스타트업을 일컫는다

[그림 2-2]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



(출처: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14쪽, 신준상, 신용보증기금, 연구자 재작성)

먼저, 창업단계에서 기업은 그동안 창업을 위해 준비한 자기자금이나 정부의 창업지원과 관련된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태펀드나 성장사다리펀드는 이때 활용할 주요 자금원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클라우드펀딩의 여러 유형 중 대출형이 창업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클라우드펀딩 업체들이 창업기업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신용에 대한 검증미비를 이유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활용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창업지원제도가 발달해 있어 이시기에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도움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이때 자기신용이 우수한 (예비)창업자는 사회연대연맹, 신나는 조합 등 마이크로크레딧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신준상,나도성의 ‘신나는 창업’)

다음은 창업단계를 지나면 성장단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초기 때는 아직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엔젤투자 자금이나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이나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그리고 정부의 정책자금 등 다양한 자금원을 두드릴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준비를 하거나 출시 중인 단계이다. 이때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자금수요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

이며 금융권을 포함한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창업기업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연구개발 자금은 주로 정부의 R&D 지원자금을 활용하고, 운전 및 시설자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성숙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안정적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자체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게 되고, 일반적인 자금조달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 이 시기부터 벤처캐피털은 자금을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자금제공을 검토한다. 즉, 적절한 수익이 예상되면 출구전략(exit plan)을 확인한 후 비교적 큰 자금을 투입하는 까닭에 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IT, 벤처창업기업들은 중국, 미국 등의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성숙의 단계를 지나 회수단계에 이르는 시기이다. 기업은 회수 단계에서는 M&A 시장을 통해 자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에 기업을 매각하거나,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을 계획하면서 지속적인 확장을 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규모의 자금회수가 가능하게 된다(신준상, 나도성, 신나는창업)

제 3 절 경영성과

연구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창업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기술과 혁신이 중요한 성과지표로 판단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의 성과 측정에 있어서 대부분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로 구분되어 지기도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있어 재무적 성과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 그 원인으로 창업기업은 재무적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그다지 신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재무자료의 제공에 있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 자료가 명확한 재무자료라 하더라도 기업의 자료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다수 사용되어 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서는 창업기업이 비재무적 성과의 가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로버트S.캐플란&데이비드.P노튼은 BSC성과지표 관리방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는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정확한 성과의 측정은 다양한 기업의 활동과 시간을 반영한 성과의 측정”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병권(2015)은 전통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재무적 지표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재무적 지표로서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같은 객관적인 지표는 기업 활동의 결과를 제공은 하지만, 그 과정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 하였다. 또한 기업은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에 따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주장하게 되었다.

(박정아,2001)재무적 경영성과란 성과측정으로 기업의 이익 기여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측정지표를 재무적 성과라고 하였으며, 과거 기업의 성과측정은 재무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어, 고객 및 조직과의 연계성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박문영, 2019)이런 현상은 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이나 교육·훈련비용 등 지출을 축소하여 기업의 미래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박문영, 2019)Gupta and Gonvindarajan(1990)은 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측정도구로 매출액 증가의 정도, 세전 이익 증가, 시장의 점유율, 세전 고정자산 이익률, 신제품 개발정도, 조직원 복지 증대조직원 사기 증대 등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박문영,2019)Kividarvi & Saarinen(1995)는 경영성과를 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상승률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자산 수익률 및 매출액 순수익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총매출에 대비한 비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제조원가, 간접비 비율, 원가 비율 등을 활용하여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였다(Mitra &Chaya,1996). 하위 항목이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관점인 Kaplan &Norton(1996)의 균형 성과지표(BSC)를 사용하여, 관광호텔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박정아,2001). 기업의 규모, 기타 여러 전략사업에 따라 매출액과 같은 계량적 지표의사용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박문영, 2019) 따라서 계량적 지표가 아닌 비율 형태의 지표사용도 유용하며, 다양한 재무

비율 가운데 총자본이익률 또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수익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 등 영업 활동의 양측 면을 측정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지호, 2014). 육현영(2016)은 1인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매출액, 순이익의 증가의 재무성과와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증가로 시장성과와 창업기업의 경영자의 지속적 투자를 경영성과의 측정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비재무적 경영성과로 'BSC는 성과측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년대 초에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지금처럼 지식기반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무형자산의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재무성과의 측정만으로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창출에 대한 활동을 확인할 길이 없다. 조직의 무형자산에는 스킬과 역량, 동기부여, 데이터베이스와 정보기술(IT),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 고객의 충성도 및 이를 통한 관계, 정치적·규범적·사회적 승인 등이 포함 된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문제의 핵심은 전략이 아니라 실행에 있는 것이다. 장동민(2019)안규선(2010)은 비재무적 성과가 재무적 성과의 선행 지표로서 재무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측정치들은 재무적성과의 선행지표라고 말하고 있다. 신동하(2011)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여야 창업기업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측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성과는 종합적 고려를 통해야 한다고 하였다. (장동민, 2019)양희철(2014)은 창업기업의 성과는 경영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반영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성재(2019)박재환(2013)은 청년창업가의 창업성과로서 창업을 한 후의 고용 창출에서 고용성과와 매출, 또는 실질적인 금전적 성과를 측정하는 재무성과 향상으로 창업성과를 규정 하였다. 황미애(2008)는 창업가가 고용성과 성과지표로 창업이 소용창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창업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로 창업성과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창업기업의 성과 측정은 과거 재무적 평가방식에서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성과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3 장 정책자금 현황과 추진체계

제 1 절 정책자금의 필요성

지구촌의 모든 국가는 창업 활성화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청년창업은 여러 방면의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저 성장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경기도의회, 2015)

세계 각국의 창업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이우진, 2017)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창업자의 실패에 관대한 창업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는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업활동을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인센티브 등 각종의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12)‘벤처창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에서 해외 주요국 창업지원 정책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독일은 (조유리, 2016)물리적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 구축 및 공공 펀딩 프로그램 확충, 비즈니스를 위한 컨설턴트 및 비즈니스 지원을 완비하고 기업가정신의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민간 주도로 시장 원리에 따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등 다방면으로 창업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핀란드는 경제성장을 위한 ICT 산업 위주의 창업 지원에 노력 한다. (국회 도서관, 2018)대기업 위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수많은 벤처·창업 기업들이 활성화 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인 환경 조성에 노력 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법인세 인하, R&D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한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국립기술혁신지원청(Tekes)을 중심으

로 한 창업 자금 지원을 비롯하여 융합형 인재 양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제도적 뒷받침과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업 지원 신청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¹³⁾

(국회도서관,2018)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창업 정책 시행으로 창업 관련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회도서관,2018)정부 주도의 자국 ICT 기업의 핵심기술과 혁신능력, 높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회사법 개정을 통해 창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창업비용을 완화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창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할 수 있는 대중 창업 공간 등 새로운 창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정부 주도에서 민간과 외국 자본에게 공간을 열어 주면서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¹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중앙 정부의 부담을 덜고 지방 발전을 경쟁적으로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과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안수진,2020)정보통신산업 시장에 대한 투자와 외국인 투자 장려를 장려하고 세계적 하이테크 산업 클러스터인 실리콘 와디(Wadi)¹⁵⁾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벤처캐피탈 운용과(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정부 주도에서 민간법인이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신정책정보, 2018)이스라엘 인큐베이터는 기술, 산업기술, 바이오테크 분야를 지원하며, 개별적으로 집중분야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으로 인센티브 메커니즘, 하이테크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수진,2020) (조유리,2016)엄격한 선정 및 평가와 마일스톤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 분야별로 특화된 인큐베이터 운영과 정부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문가집단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호주는 인큐베이터 & 엑셀레이터에 대한 설립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3) , ICT벤처 생태계의 변화 분석을 위한 패널 데이터 구축 및 정책방향연구(Ⅲ 총괄 보고서,2018)

14) 최신정책정보(국내)2018 제3호(67호),(2018)

15) 안수진, 4차 산업혁명과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기업에 미치는 영향(2020)논문

(이우진,2017)해외 유망 창업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도입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 한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지원을 비롯하여 벤처캐피탈 세법을 변경하는 등 VC펀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지역에 “스타트업 랜딩 패드“를 설치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선진 주요국에 대비 활성화 수준이 낮다. 무엇보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폐쇄적 구조로 인한 혁신 한계 등의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기존기업 대비 창업기업 비율은 중국의 1/4 수준이고, GDP대비 벤처투자 비중도 주요국 대비 낮다. 아래의 표는 2018년 관계부처 합동 회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국가별 창업생태계 지표를 비교한 자료이다

창업율을 보더라도 중국의 창업기업의 수는 기존기업의 수 대비 41.0%이고 미국은 7.4%이다. 우리나라는 9.0%로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표 3-1] 주요국 창업생태계 지표 비교

구분	중국	미국	한국
창업률(창업수/기존기업수)	41.0%	7.4%	9.0%
GDP대비 벤처투자 금액	0.28%	0.37%	0.13%
회수시장내 M&A비중	21.6%	93.7%	10.5%

(출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8. 연구자가 재작성)

글로벌 혁신기업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폐쇄적 구조아래에서 혁신의 한계가 존재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대기업 네트워크에 편입되지 못한 스타트업의 애로 등으로 혁신창출이 제한되면서, 기업생태계 전반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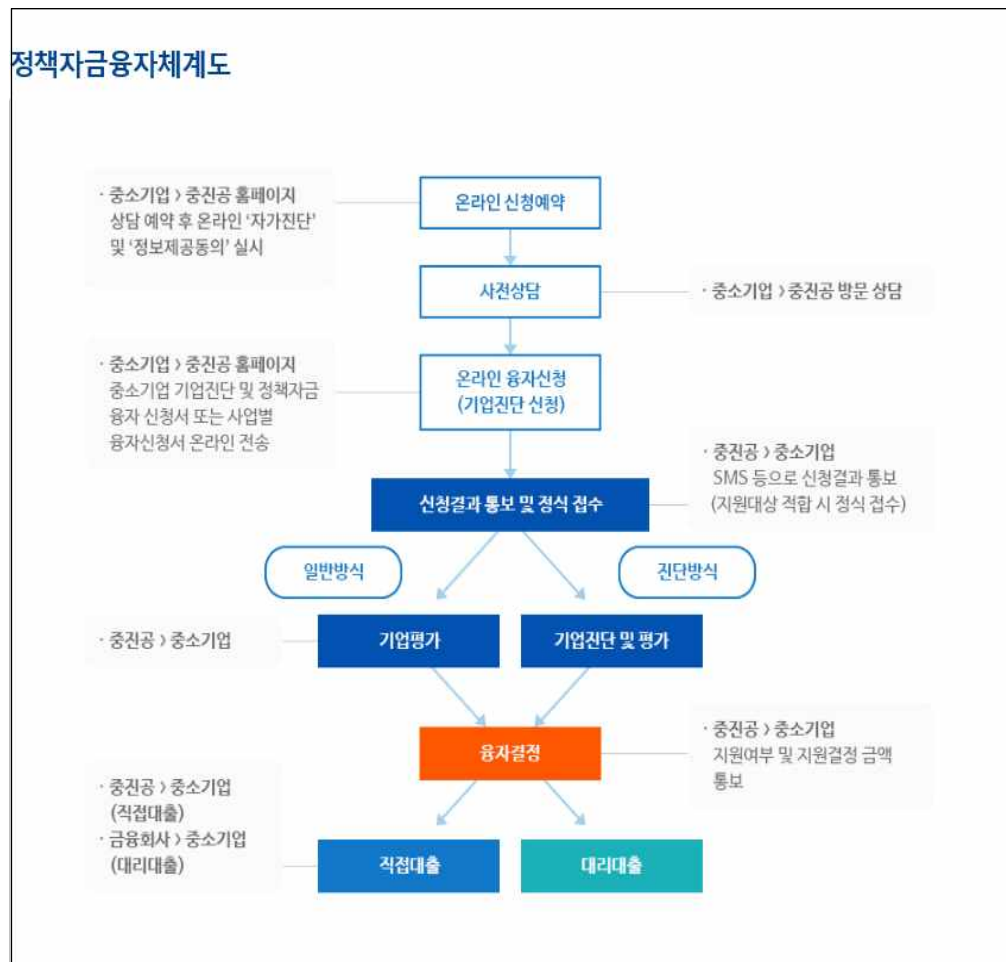
제 2 절 정책자금 현황 및 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019년 기준, 설립 40여년을 맞이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이다. 1978년 12월 「중소기업진흥법」 제정에 근거하여 1979년 1월 설립 되었다. 중진공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집행 기관으로서 정책자금 업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9년 설립 당시 제조 산업에 대한 집중적 육성과 함께 중소기업현장에서의 기술애로와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독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의 기술자를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에 기여하였다. 컨설팅지원사업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제조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 기술컨설팅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중소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판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사업, 온라인수출지원, 전자상거래활용 수출사업, 수출인큐베이터와 해외지사화사업 등 세부사업별 지원사업을 자금지원을 비롯하여 연계지원으로 추진 되고 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으로 '82년 10월 개원한 안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개원을 시작으로 '01년 전라도 광주시 소재의 호남연수원, '03년 경상도 경산시 소재 대구경북연수원, '04년 창원시 소재 부산경남연수원, 태백시 소재의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이 개원 되어 운영 중으로 천안시 소재의 충청연수원이 '21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82년 안산시에 위치한 연수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누적인원 약 150 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연수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중진공은 정책자금과 연계한 수출마케팅사업, 중소기업 현장근자들을 위한 향상연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갖추고 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 추진이 설립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3-1]은 중진공의 정책자금이 집행되는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 체계도이다. 아래의 지원 체계도를 살펴보면, 정책자금은 매년 인터넷과 홍보매체를 통한 중기청장의 사업공고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정책자금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내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홈페이지에서 소재기업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사전 상담예약 방식으로 자금별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그림 3-1] 정책자금 용자체계도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요

건이 충족한 신청기업이어야 한다. 요건이 충족한 기업에 대한 2차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업종별 2인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기업 현장을 방문한 실태조사로 일반평가 또는 컨설팅을 수반한 진단평가방식으로 실시 한다. 자금지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현장실태조사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합산한 일정수준의 기업이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결정은 문서로서 통보하고 대출방식은 신청기업이 직접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20년도 자금별 예산은, 유형별로는 정책목적성이 높은 고용 창출, 창업, 수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전략산업 영위 중소 벤처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기술 및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금융관행을 선도하여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대상은 민간금융이 기피하는 시장소외(고위험, 저수익)영역을 집중 적으로 지원하여 보증, 투자 등과 차별화 하고 있다. 지원결정은 문서로서 통보하고 대출방식은 신청기업이 직접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20년도 자금별 예산은, 유형별로는 정책목적성이 높은 고용 창출, 창업, 수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전략산업 영위 중소 벤처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기술 및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금융관행을 선도하여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대상은 민간금융이 기피하는 시장소외(고위험, 저수익)영역을 집중 적으로 지원하여 보증, 투자 등과 차별화 하고 있다.

[표 3-2]는 ‘20년 자금별 예산 현황 이다. ‘20년 정책자금 총 예산은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재난자금을 비롯한 추경자금을 포함하여 총예산은 5조 6,900억원 이다. 혁신창업사업화 예산이 27,500억원 으로 총예산의 48.4%로 예산비중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7,000억원 으로 12.3% 이다.

[표 3-2] '20년 자금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 예산	
	금액(A)	비율(%)
혁 신 창 업 사 업 화	27,500	48.4
투 용 자 복 합 금 용	2,000	3.5
신 시 장 진 출 지 원 자 금	3,000	5.3
신 성 장 기 반 자 금	14,300	25.1
재 도 약 지 원 자 금	3,100	5.4
긴 급 경 영 안 정 자 금	7,000	12.3
계	56,900	100%

(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연구자가재작성한 자료)

다음 [표 3-3]은 최근 3년간 중진공이 지원한 정책자금(담보별)지원실적이다. 담보별 지원액을 살펴보면, '16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지원액 중 신용에 의한 대출이 전체 대출액대비 67.4%, '19년은 57.4% 이다. 담보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신용 비중이 가장 높다.

[표 3-3] 정책자금(담보별)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신 용		보증서		부동산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6년	30,678	67.4	1,340	3.0	13,494	29.6	45,512
'17년	28,820	61.8	1,536	3.3	16,306	34.8	46,661
'18년	24,207	54.8	941	2.1	19,002	43.0	44,150
'19년	25,025	57.4	742	1.7	17,813	40.9	43,580

(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연구자가 재작성한 자료)

다음의 [표 3-4]는 '17년 ~'19년도에 집행된 정책자금(업종별)지원현황 으로, 연도별 대출 잔액은 '16년 14조4,557억원, '17년 15조1,133억원, '18년 15조,8340억원, '19년 16조5,685억 원이다.

[표 3-4] 정책자금(업종별)지원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제 조 업(%)			33,586(72.0)	33,289(75.4)	33,185(76.1)
전략산업(%)			36,452(78.1)	39,009(88.4)	38,151(87.4)
지 역	수도권(%)		19,576(42.0)	17,382(39.4)	15,649(35.9)
	비수도권(%)		27,085(58.0)	26,768(60.6)	27,931(64.1)
첫걸음기업	업체수(%)		13,734(60.1)	10,537(60.3)	8,316(52.4)
	금액(%)		24,907(53.4)	24,114(54.6)	19,907(45.7)
용 도	시 설(%)	전 체	18,065(38.7)	22,275(50.5)	21,228(48.7)
	운 전(%)	전 체	28,596(61.3)	21,875(49.5)	22,352(51.3)
업 력	1년 미만(%)		5,303(11.4)	5,775(13.1)	4,875(11.4)
	3년 미만(%)		13,418(28.8)	13,854(31.4)	11,678(26.8)
	5년 미만(%)		21,107(45.2)	20,562(46.6)	17,845(41.0)
	7년 미만(%)		27,743(59.5)	26,505(60.0)	23,522(54.0)
	10년 미만(%)		32,622(69.9)	30,547(69.2)	27,870(64.0)
종업원수	10인 미만(%)		22,383(48.0)	21,836(49.5)	19,440(44.6)
	20인 미만(%)		32,332(69.3)	31,043(70.3)	28,590(65.6)
	50인 미만(%)		41,989(90.0)	39,649(89.8)	37,575(86.2)
	100인 미만(%)		45,134(96.7)	42,784(96.9)	41,242(94.6)
사업장매입, 건축 지원결정비율			66.2%	61.2%	62.3%

(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연구자가 재작성함)

다음의 [표 3-5]는 정책자금과 민간금융에 대한 비교 자료이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정책자금은 금리 대출기간 에서 차별화 되어 있다. 정보비대칭 등으로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이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신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표 3-5] 중진공 vs 은행대출 비교(기준: '19년말)

구 분	중 진 공	은 행
조달 방법	○채권발행 88.7%* *만기시점의 대출금액 연장은 채권 발행금액 변경으로 기재부 승인필요	○예금 87% (평균 1~2년) (은행여수신 비율 기준) ○은행채 발행, 한은차입 등 13%
자금 운영	○ 3년거치 3년의 경우, 운전 (예)청년전용자금	○ 1년 후 일시상환
	이자상환 원리금 상환기간 (3년) (3년)	이자상환 갱신 갱신 * 만기시점에 일시상환
	○장기지원(예)청년전용창업자금,시설 - 일정기간(10년)안정적인 자금운영	○단기 위주(1년, 연장가능) - 매년 신용평가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 - 매년 대출약정 갱신 *단,신용등급 하락, 경기변동, 금융기관 정책 변경 등에 따른 연장거절,금리인상, 담보추가 제공,대출금 일부 회수 등 발생가능
	○거치기간 완료 후 원리금 상환에 따라 상환 부담 완화	○만기일시상환으로 상환 부담 상당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조달금리 연동)*** - 2.15%('20.2분기)	○시장금리(COFIX 등 연동) - 중기 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금액): 3.13%('20.3월, 한국은행 통계)

*정책자금 기준금리 : 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일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일 20일까지의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공모)누적 평균 조달금리에 따라 결정
(제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재작성)

제 3 절 청년전용창업자금 현황

1)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개요

정책자금으로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우수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 초기 운영자금 공급으로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18년 기준 용자규모는 1,5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3년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용자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금리는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용자기간은 시설/운전 6년 이내로 운영 하였으나, 20'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대출기간은 늘리는 형태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였다. 일반 창업과 다른 지원절차상의 특징은

창업기업의 역량강화사업인 교육과 멘토링이 결합된 형태로 기업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매년 중기부 사업공고 와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국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18개의 청년창업센터(본부 16개소, 지부 2개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다. 동 자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수립 및 작성교육’을 실시한 후 ‘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들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사업계획 심화 멘토링’을 실시한 후, 창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 공급으로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표 3-6]은 금리/상환기간에 대한 개선 실적으로 ‘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12년 대출금에 대한 용자기간을 3년 단기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청년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노력을 계속 진행 중이다. 대출금리, 상환기간, 지원요건 등을 개선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장하고 상환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표 3-6] 금리/상환기간에 대한 개선 실적

‘12	· 용자기간:3년 → 5년으로 연장(용자상환금 조정형 지원기업)
‘14	· 상환기간:3년 → 5년으로 연장(2년거치, 3년 상환)
‘16	· 금리:2.7% → 2.5%로 인하 · 대출기간:5년 → 6년으로 연장 (3년거치, 3년상환) · 상환기간연장:+1~2년 (데스밸리영역지원강화)
‘17	· 금리:2.5%→2.0%로 인하
‘18	· 기업자율상환제도 도입:’18년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상환가능 → 만기일시 상환 부담완화

또한, ‘15년에는 기존 용자/보증과 관계없이 기업당 1억원을 한도로 용자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17년 7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연대보증 면제 확대로 연대보증 면제를 완전

폐지하여 운영 중이다. '12년 청년창업아카데미에 창업실전과정을 추가하는 자금운영에 대한 연계지원을 실시하였으며 '15년은 그동안 직접대출과 함께 운영해온 민간금융매칭형 운용방식을 폐지하고 직접 대출방식으로만 운영 중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및 입교자를 대상으로 창업성공패키지를 '17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다음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추진 절차도 이다

[표 3-7] 청년전용창업자금 추진 절차도

절차	주요 내용
용자신청	· 청년 창업자 → 중진공 홈페이지 → 온라인 자가진단 → 사전상담(방문)→신청·접수(온라인)
재원 및 신청접수	· 중진공 청년창업센터
사업계획서 수립 및 작성교육 (Pre-School 기본 I)	· 집합 교육(서류 심사 통과자) - 사업계획서 작성 이론 교육 및 멘토링(2일) · 장소 : 중소기업연수원(안산,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충남사관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 공개 심사 : '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
아이템 컨셉 디자인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등 사업화 과정 (Pre-School 기본 II)	· 집합 교육(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 통과자) - 기업가 정신, 성장 로드맵 수립, 아이템 컨셉 디자인, 아이템 개발 및 검증, 비즈니스 모델링 등(3일) · 장소 : 중소기업연수원(안산,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충남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심화 멘토링	· 사업계획서 심화 멘토링 및 자금사정
창업	· 예비 창업자에 한함(사업자등록 완료)
창업자금 대출	· 직접·신용대출 : 청년창업센터
사후관리	· 사업계획 진행사항 및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 후속 연계지원(멘토링, 타 정책자금, 마케팅 등)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실적

중진공 자료(2019.9)에 의하면 청년전용창업자금에 대한 대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액을 거듭하고 있었다. [표 3-8]은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에 대한 ‘12~’18년간 대출금액이다. 지원된 지역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15개 지역에서 서울 24.8%, 경기지역 21.0%로 대출이 가장 높다. 또한, 대출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청년전용창업자금에 대한 연도별 지원금액이다

[표 3-8]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금액

지역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비중
서울	17,403	20,090	27,020	27,035	26,190	34,380	36,320	188,438	24.8%
경기	13,665	17,510	23,262	22,440	22,290	29,260	31,090	159,517	21.0%
경남	4,415	5,625	6,220	7,130	7,600	9,400	9,920	50,310	6.6%
부산	4,055	4,880	6,440	7,875	7,460	9,120	10,030	49,860	6.6%
대구	4,882	5,070	5,110	6,140	6,450	8,160	8,880	44,692	5.9%
인천	3,389	4,300	5,318	5,620	6,350	7,930	8,640	41,547	5.5%
경북	2,820	3,290	4,130	6,050	5,430	6,580	7,040	35,340	4.7%
광주	3,591	3,650	4,270	5,230	4,950	6,380	6,940	35,011	4.6%
대전	3,446	2,910	3,820	4,490	4,500	5,810	6,100	31,076	4.1%
전북	2,978	3,000	3,250	3,950	3,810	5,060	5,540	27,588	3.6%
충북	2,440	2,760	2,840	3,510	4,120	5,010	5,440	26,120	3.4%
충남	934	2,190	2,700	3,230	3,450	4,080	4,620	21,204	2.8%
울산	1,150	1,360	1,890	2,630	2,540	3,100	3,340	16,010	2.1%
강원	2,529	1,380	1,600	1,900	1,930	2,250	2,420	14,009	1.8%
전남	1,220	1,350	1,360	1,670	1,760	2,180	2,180	11,720	1.5%
제주	1,083	635	770	1,100	1,170	1,300	1,500	7,558	1.0%
총합계	70,000	80,000	100,000	110,000	110,000	140,000	150,000	760,000	100.0%
* 2012~2014년은 전체 금액에서 민간금융매칭형(중진기금) 금액을 제외한 것임. (2015년부터 민간금융매칭형 폐지) (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구성)									

‘18년 기준 대출 지원경쟁률은 1.59:1로 타 정책자금 지원업체 수 대비 높은 것으로 자료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청년층의 창업자금 수요보다 지원 업체 수가 많다. 표에는 나타나지 못하였지만 자금별로는 ‘18년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경쟁률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1.15:1(신청8,666개사, 대출7,544개사), 신성장기반자금 1.12:1(신청1,880개사, 대출1,686개사), 긴급경영안정자금 1.13:1(신청1,822개사, 대출1,614개사)로 보고서에는 조사되어 있었다.

[표 3-9]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업체수 및 대출선정 경쟁률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a.신청업체수(개)	1,706	1,968	2,387	2,917	2,794	3,195	2,897	17,864
b.대출업체수(개)	1,169	1,029	1,301	1,445	1,465	1,732	1,822	9,963
경쟁률(b/a)	1.46	1.91	1.83	2.02	1.91	1.84	1.59	1.79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년 자금 소진시 까지 인터넷을 통해 사전상담신청을 접수받는다. 이후에는 기업이 신청한 상담일자와 시간에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최종 신청접수를 한다. ‘18년은 신청 예비창업자와 3년미만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작성 이론교육 및 개별 멘토링을 중심으로 하는 ‘Pre-School I’ 교육을 진행하며, 청년창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이후 경영실무 및 창업실전 중심의 ‘Pre-School II’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였으나 ‘20년은 이론교육 및 개별 멘토링을 생략하여 빠른 지원결정이 되도록 간소화 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자는 1차 와 2차 평가로 진행되는데 1차 평가는 전문가에 의한 창업자 역량평가를, 2차 평가는 ‘청년창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교육 멘토링 수료자(교육 멘토링 면제대상 포함)의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후,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위원별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창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및 경쟁력, 사업성 및 파급효과성, 정책자금 상환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한다. 최종

선정은 1차 평가 와 전문위원회 2차 평가를 합산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선정 한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60점미만 획득자(기업)라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적합’의견시 의결이 진행된다. 창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기업)에게 담당 전문위원이 사업계획서 및 자금사정 등에 대해 1:1 방식으로 멘토링을 실시하며, 멘토링 후 멘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금대출 실행은 청년창업자의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100% 신용대출로 운영 되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지원제도에 대해 계속적으로 개선을 거듭하고 있었다. 특히, ‘12년 사업 실시 이후 대출금리는 낮추었으며,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대출기간을 길어지게 하여 초기 자금에 대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이 유리한 자금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제한사항 및 지원요건 등은 완화하여 신청자들의 경쟁을 통해 선별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창업사관 졸업자에 대해 청년패키지와 연계지원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현장의견 및 개선사항을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진공 자료(‘19년)에서는 ‘18년 기업의 자금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대출원금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기업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자율상환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원금상환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도입하였다.(기업이 ‘기업자율상환’과 ‘기존 분할상환 방식’ 중 자율적으로 선택) 대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내부직원, 전문위원, 사후관리 담당자 각각의 역할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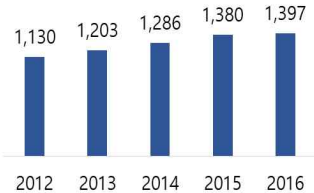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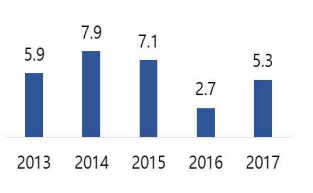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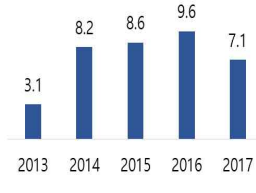
정책자금의 정책목적성을 위하여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으로 ‘용도외 사용’으로 지출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기업의 편리성을 위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하여 즉시 대응 하고 있었다. 또한 관리, 본사 추진사업 지원 등의 지원·관리를 접목시킨 연계지원으로 기업성장에 기여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제 4 절 정책 과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 등에 따른 투자위축 속에 가계소득·소비 감소로 내수회복이 제약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 속에 은행의 기업대출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는 반면, '16년의 경우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3-10] 국가 총투자증가율·가계소득증가율·소비지출증가율

대기업 사내유보금(조원)	국내은행 기업대출증가율(%)	국내은행 가계대출증가율(%)
		
(출처: NICE평가정보 KISVALUE, 금융감독원,인용)		

(송병준,2011)국가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고용창출이 높은 서비스산업과 창의적 사업아이템에 도전하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내수의 회복과 성장 동력 확충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일자리 구조의 전환과정에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창업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및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투자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정책자료 2011-159)

이처럼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OECD국가 중 낮은 수준으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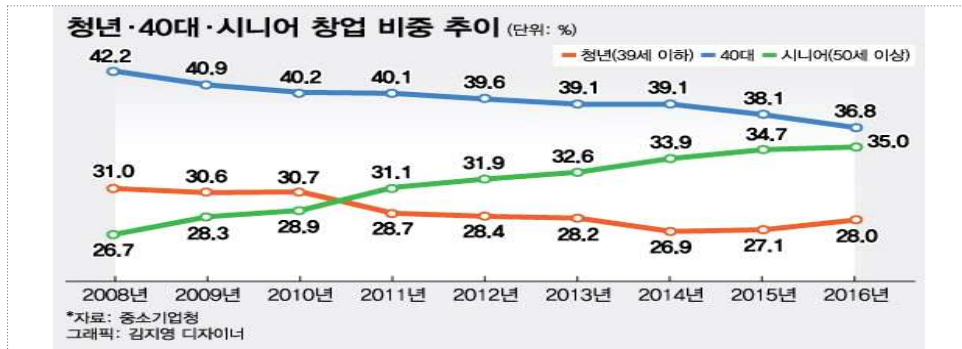
이에 국가 미래성장 핵심 동력인 청년층의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를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1%(2017년 기준)로 OECD 35개국 중에 30위에 해당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2년 대비 2017년의 청년실업률은 OECD 국가 전체 평균이 3.7%p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2.3%p 증가하였다. 청년고용률은 전체 평균 2.7%p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8%p 증가하였다.(송병준 2011) 향후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창업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교육이 미흡하며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창업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층의 창업이 활성화 된다면 청년 스스로 고용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12 ~ '14년간 평균 취업자 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 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17) 세계 226개 유니콘기업은 기업당 평균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기업의 창업자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중소기업연구원, 2018)

*유니콘기업의 경우 창업당시 CEO 평균 연령은 33.6세이다.

(창업진흥원, 2019)청년층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업운영에 대한 지식 및 노하우 부족 등으로 중장년층에 비하여 쉽사리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창업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청년층(39세 이하)의 창업비중이 가장 낮으며, 50대 이상 시니어층의 창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년층(39세 이하)의 창업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그림 3-2] 연령대별 창업 비중 추이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인용)

창업생태계조성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강화의 필요¹⁶⁾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해 있다.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고용악화 및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악화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다. 다음은 교육·멘토링과 연계한 청년창업자 금지원 필요성으로 청년층의 주요 창업 장애요인으로 청년층이 창업 시 겪는 주된 애로사항은 창업자금조달과 창업교육 및 멘토링 부족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도출된 창업의 주요 성공요인인 ‘충분한 자금의 조달’과 ‘경영자 역량’과 연계 된다. 기업성장단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창업단계에서는 사업화에 성공하기에 ‘충분한 자원의 조달’과 사업모델 정립, 시장파악, 기술 확보 등을 위한 ‘경영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창업단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과 인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고 사업화하기 위한 멘토링과 투자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파이낸셜 뉴스, 2020.6)최근 서울시는 COVID-19 대비 스타트업육성정책을 발표하였다. ‘COVID-19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갈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규모 총1,750억원 지원한다.

다음의 [3-11] Start-up NEST(신용보증기금)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전

¹⁶⁾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관계부처합동, 2017.4.19.)’,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관계부처합동, 2018.3.15.)’의 내용을 활용하여 재구성

용창업자금과 유사한 지원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Start-up NEST’¹⁷⁾가 있으며, 이는 유망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자금지원(투·융자) 및 성장을 위한 연계 지원까지 실시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Start-up NEST는 유망스타트업 발굴→엑셀러레이팅→금융지원→성장지원으로 One-stop 프로그램이다. 투·융자지원은 물론 컨설팅·멘토링·기술자문·해외진출·M&A중개 등 금융·비금융서비스를 복합 지원하여 스타트업이 성장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집중 육성 한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17년 공공기관 협업과제’에서 우수과제로 선정)

[3-11] Start-up NEST(신용보증기금) 지원내용

단 계	내 용
1단계 유망대상기업선별	후보공모 → 교육 → 선발
2단계 ▲ 엑셀러레이팅	컨설팅, 멘토링, 정보제공, 네트워킹
3단계 ▲ 금융지원	보증, 보험, 민간투자, 크라우드펀딩, 보증연계
4단계 ▲ 성장지원	마케팅, IPO, 기술지원, 해외진출, M&A

또 다른 [표 3-12]를 살펴보면, 청년 창업자금지원사업 특성 비교지원사업으로는 ‘P(Plan)-D(Do)-C(Check)-A(Act)’의 기업경영 관점에서 청년 창업 자금지원사업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사업계획 수립에서 운영개선까지 One-Stop으로 연계지원 한다는 점에서 타 사업과의 명확한 차별성이 있다. 이는 청년층의 주요 창업 장애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수요 대응형 지원체계이며,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초기 교육·멘토링과 연계한 자금지원이 중요함을 알수 있었다.

17) ‘Start-Up NEST’는 청년층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운영의 목적과 지원 방식이 유사하여 상호 비교함

[표 3-12] 청년 창업자금지원사업 특성 비교

구분 (소관)	기업경영 관점에서의 지원내용 (금융/비금융 지원)			
	Plan (사업계획 수립)	Do (사업실시)	Check (운영점검)	Act (운영개선)
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 창업실전교육	· 자금용자 지원 -기업당1억원 -연2%고정금리	· 사후관리: 멘토링,대출금 사용내역 모니터링	· 연계지원 (판로확대 등)
청년희망드림 보증(금융위원회)	-	· 보증지원 -운전자금:3억원 -시설자금:소요자금	-	-
2030Start-up 보증(금융위원회)	· 컨설팅연계 :보증서 발급전까 지경영컨설팅실시	· 보증지원 -운전자금:15억원	-	-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대구)	-	· 청년창업기업 약정 총액의 60%이상 투자	-	-
청년벤처창업 펀드(대구)	-	· C-Lab입주기업 전원2천만원지원 · 추가투자최대 2.8억원	-	-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광주)	-	· 최대 20백만원	-	-
청년창업특례 보증(광주)	-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5년 이내상환)	-	-
청년창업 프로젝트(강원)	-	· 사업비지원 -식품: 최대40백만 -지식: 최대25백만	· 사후관리:멘 토링,사업화비 용등지원	-
창업우수기업 발굴육성(충북)	-	· 5개기업선정/지원 -기업당 20백만원 내외 지원금 지원	-	-

(출처: ‘2018년 창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18, 연구자 재작성)

중앙부처/지자체의 창업지원정책자금 중 청년층(만 39세 이하)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을 비롯하여 청년희망드림 보증,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청년벤처창업펀드,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청년창업특례보증, 청년창업프로젝트, 창업우수기업 발굴육성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본적으로 지원대상 측면에서 청년층에 집중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지원규모(지원업체수, 교육·멘토링, 자금지원) 및 수출성과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표 3-13] Start-up NEST(신용보증기금) 운영실적(2017년말 기준)을 살펴보면, 지원업체수로는 '17년 기준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지원업체수는 1,732개사

로 Start-up NEST 지원업체수 100개사의 약 17배이다. 교육·컨설팅 지원실적은 '17년 기준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교육·멘토링 실적은 창업교육 1,764명, 멘토링 5,601회, 석세스코칭 595건으로 Start-up NEST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자금지원 실적은 '17년 기준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금액은 1,400억원으로 Start-up NEST 지원금액인 703.2억원(보증·보험, 투자, 펀딩)의 1.9배이다. 수출성과는 '17년 기준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기업 중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지원한 결과, 32개사에서 192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3-13] Start-up NEST(신용보증기금) 운영실적(2017년말 기준)

구분	지원 업체 수	컨설팅·멘토링		보증·보험			투자		크라우드펀딩		신규 수출
		Pre- NEST 교육	엑셀러 레이팅	신용 보증	Credit Line	신용 보험	신보 (보증 연계)	민간 (완료/ 협약)	국내	해외	
업체수 (개, 건)	100	200	100	59	34	14	6	20	3	1	1
금액 (억원)	-	-	-	222	331	6.2	19	151	0.4	0.6	2.5

(출처: '2018년 창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18, 연구자 재작성)

창업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역할을 수행하여 선진국·후진국을 막론하고 창업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고용창출이 높은 서비스산업과 창의적 사업아이템에 도전하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내수의 회복 및 성장 동력 확충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일자리 구조의 전환과정에 선제적인 대응¹⁸⁾도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기업의 탄생은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요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도 신규 일자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면 청년 스스로 고용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¹⁸⁾ m.bolg.naver.com.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마련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업운영에 대한 지식 및 노하우 부족 등으로 중장년층에 비하여 쉽사리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창업진흥원, 2019),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창업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제 4 장 정책자금 분석

미국의 빌게이츠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자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젊은이’를 꼽았다. 이는 청년 창업이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청년 창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청년 창업이야말로 말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정책자금은 창업생태계 조성 및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양현봉, 박종복, 2011)

제 1 절 청년창업자의 특성 분석

(황보 윤, 2011)청년창업자의 개인특성에서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아왔으며, 창업자와 비창업자를 구별해주는 개인특성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었다. (조중연, 2016)심리적 특성들 중에서도 연구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아온 심리적 특성으로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등을 들 수 있다

(조중연, 2016)개인특성에서 성취 욕구(Need for achievement)는 연구자들에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경영자의 특성으로 경영자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목적을 신속하게 문제없이 잘 수행하려는 바람 또는 심리적 상태이며, 성취 욕구가 높은 경우 기업의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높은 성취 욕구는 성공한 경영자들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주요 요소로서 간주되어 왔다.

(조중연, 2016)McClelland(1961)는 ‘성취하는 사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경제발전에서 있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인,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구성되어 있

고,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진 개인들의 경우 문제해결과 목표설정, 그리고 자신의 노력 등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며, 자기 자신에게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고, 명확한 목표 수립을 세우고 스스로 도전적이며,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김운자, 2002)McClelland (1965)는 연구에서 성공하기 위한 욕망을 강하게 가진 사람을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보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속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첫째, 기술적인 기능으로서 적절한 위험감수자가 된다. 둘째,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선호한다. (김운자, 2002)셋째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완전한 의식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으로 보아 강한 성취 욕구는 성공창업자가 되도록 유도한다고 결론지었다.

(조중연, 2016)성취욕구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 중에서 Begley & Boyd (1987)와 Carsrud &Olm(1986)는 성취 욕구에 관한 연구로서 리더의 성취욕구와 벤처기업의 성과간의 관계를 밝혔으며, Komives(1972)는 성공적인 첨단 기술관련 경영자의 높은 성취욕구가 경영자의 공통적인 특성임을 밝혀냈다. 그리고 (조중연, 2016)Stewart, Watson, Carland, & Carland.(1998)의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소규모기 업주들보다 벤처기업가들의 성취욕구가 더 높음을 밝혀냈으며, Hornaday & Aboud(1971)는 일반인들보다 기업가들의 성취욕구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조중연, 2016)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성공적인 창업자들의 높은 성취욕구는 창업성과에 있어서 주요한 성공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연구를 종합해보면, (조중연, 2016)성취욕구가 높은 경영자들은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또한 높은 기준으로 수립된 목표와 경쟁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지려한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매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성한·김해룡, 2001)개인특성에서 위험감수성향(risk-taking propensity)은

창업자와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어 온 심리적 특성 중 하나로서, 창업자가 사업관련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잡고자 위험도 감수하려는 심리적인 의지를 말하는 개념이다.(천기호,2019)(조중연,2016)일반적으로 기회를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는 사람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경영자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위험 감수성향이 높으며,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경영자일수록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높은 위험감수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결정을 빨리 내리며, 기회를 기꺼이 잡으려고 하지만, 위험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빈봉식·박정기, 2002).

(천기호,2019)Palmer(1971)의 연구에 의하면, 효과적인 창업자는 위험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창업의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Kuratko(1998)는 “새로운 사업체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위험감수성향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때로는 커다란 대가를 부담해야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라고 하였다. Begley와 Boyd(1987)는 지나치게 높은 위험감수성으로 재무적인 경영성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적절한 위험감수성향은 재무적인 경영성과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조중연, 2016).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면, 창업자가 이러한 위험들에 맞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등이 창업자 스스로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은 물론, 창업에 있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김완재, 2007). (천기호,2019)대부분의 기업가는 그들의 시장 환경 탐색을 통해 외부의 기회를 탐구함과 동시에 위험요소를 회피하고자 한다. (조중연,2016)이러한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자하는 의지로서, 하나의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자하는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경영자는 창업과 창업 후 경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하며,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 이러한 위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다(조중연, 2016).

모호성에 대한 인내(tolerance for ambiguity)는 불확실한 어떠한 상황들에 대한 인내하는 정도를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조중연, 2016). Budner(1962)는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에 대하여 모호성은 복잡함과 생소함 등에서 생긴다고 하였으며, 모호성에 대한 비인내력(insolubility)이 위협받는 것만큼 모호한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자각하려하며, 희망하는 상황을 지각하고자하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있다(조중연, 2016). Sexton & Bowman(1985)은 모호성 인내는 ‘모호한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개인이 조직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이며, 특정된 상황을 구조화하는데 있어 충분한 단서들이 부족할 때 개인들은 모호성을 지각했다고 하였다(조중연, 2016).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호성을 지각하는 경우로는, 불확실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사전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한 경우로 새롭거나 또는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울 때 일수록 개인들은 모호성에 대한 인내가 발휘가 된다(조중연, 2016)

McClelland(1969)는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을 높게 지닌 사람은 비정형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찾는다고 주장하였으며, Begley와 Boyd는 소규모기업 즉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자 모호성에 대한 인내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경영자의 모호성 인내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경영자보다 높음을 발견하였다(조중연, 2016). Schere(1982)는 경영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모호성 수용력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경영자가 관리자보다 더 높은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Sexton & Bowman(1984)도 그의 연구에서 잠재적 경영자들과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잠재적 경영자들이 관리자보다 더 높은 모호성 수용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혀냈다(조중연, 2016). 경영자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활력을 얻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많은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경영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조중연, 2016).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tolerance for ambiguity)은 개인이 어떤 상황을 정리하거나 파악 할 때 그 상황에 충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모호성을 지각한다(안태항, 2010). 모호성은 복잡하거나 또는 해결이 어려울 때 모

호성을 느낀다고 본다. Bunder(1962)는 모호성에 대한 비인내력(insolubility)을 위협받는 것만큼 모호한 상황을 지각하려는 경향을 파악하고,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은 희망하는 상황을 지각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있다(안태항, 2010). 모호성에 대한 인내란 애매한 상황을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경향인 반면,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러한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모호성의 인내력이 동기부여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면 창업자의 사업에 대한 태도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안태항, 2010)

제 2 절 창업기업의 특징적 요소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사업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아이템은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창업의 동기이다. 창업자가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업아이템을 선정하는 단계 또한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업종과 아이템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게 되는지 선정단계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조중연, 2016)첫째, 계획적인 창업의 아이템은 창업자 본인에게서 아이템을 찾아야 하고, 우연적인 창업이라도 아이템 선정은 창업자 본인에게 적합한 아이템이어야 하며, 두 번째, 시장과 고객을 충분히 분석 후 아이템을 찾고 현재의 아이템이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경은, 2016) 결국 아이템 선정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아이템을 찾아 가야 하며, 시장과 고객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시장에서 고민하고, 고객이 불편해 하고 원하는 것, 시장의 기회가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여경은, 2016). 또한, 소비자의 이목을 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템으로서, 생산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여경은, 2016). 생산이 불가능한 것이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사업성에 맞지 않음으로 의미가 없다(조중연, 2016) 즉, 업종 및 아이템은 창업의 동기를 부여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창업자, 시장, 고객을 분석 후 실현가능한 최적의 적합성을 가진 아이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은 새로운 사업체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자금조달은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본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천기호,2019)자금의 규모나 자금수요의 패턴은 창업하는 업종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 자금수요 또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창업이 실제로 진행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천기호,2019)현실적인 창업추진의 시작점은 창업자금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창업 성공의 기본적인 조건과는 또 다른 의미로 창업을 성공하게 하는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창업자가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있어, 창업자금은 가장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조중연, 2016) 창업자가 창업에 실패하는 요인으로는 적절한 시장 확보의 실패 또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 부족, 창업자의 미숙한 경영관리 능력 등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업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창업자금의 부족에 있다(조중연, 2016). 따라서 충분한 창업자금의 확보가 선행됨으로서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으며, 충분한 창업자금의 확보는 창업성공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된다(천기호,2019)자금조달의 원천은 실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자금조달의 각 원천에 따른 요구조건들도 엄격한 편이다. (조중연,2016)적절한 시기에 어떤 원천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최소의 금융비용으로 조달하느냐는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 사업체의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천기호,2019)실제로 현실적인 창업추진의 출발점은 창업자금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창업성공의 기본적인 조건과는 또 다른 의미로 창업을 성공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자 사업 운영의 필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의 특징 중 창업 준비기간에 대하여는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2010.7, 소상공인 진흥원)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사업을 위한 준비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한 기간까지 창업의 준비 기간으로 23.2%로 ‘3-6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1-3개월 미만’도 23.0%로 매우 많이 나타났다(조중연, 2016)특히 ‘1개월 미만’이 14.2%나 되고, ‘1-6개월 미만’의 준비기간을 갖는

다는 응답이 전체의 6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창업 준비기간을 보면, 숙박/외식업의 경우 ‘1-3개월 미만’이 29.1%, 그리고 오락/문화/운동의 경우 28.9%가 ‘3-6개월 미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운수/통신업의 경우 ‘2년이상’이라는 응답이 53.4%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준비기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중연, 2016).

본 연구는 정책자금의 다양한 연구에서 경영성과의 연계성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이 청년창업기업의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연구는 많았으나 청년창업자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결과를 위해 청년창업자의 특성으로는 성취욕구, 독창성과 네트워크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청년창업기업의 특징으로는 보유자원, 기술자원이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정책자금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는 결과에 도달 할 수 있었다.

제 3 절 경영성과 분석

본 연구의 진행은 중진공에서 수집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한 문헌으로 실시하였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정책목적성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였다. 경영성과는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근거 자료로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이다.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하여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이 기업 성장성의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는 경영성과에 대한 안정성으로 분석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율은 수익성지표로, 활동성은 총자산회전율의 재무지표로 하였다

따라서 재무성과에 대한 분석 기준은 ‘12년부터 ’17년 까지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수혜를 받은 기업 중 크레탑에서 재무정보를 확보한 기업을 기준으로 실시한 정보 자료로, 각 지표 및 연도에 따라 기업수는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또한 재무성과의 대외 비교를 위한 분석기준은 지원연차에 따른 재무 성과 변화를 비교하였으나 분석기준이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와 동일하게 적용 하였다. 다만, 분석범위에 폐업기업은 폐업연도까지의 재무실적을 포함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연구자가 수집한 다음의 [표4-1]은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재무지표 분석표이다. 먼저 청창자금의 매출액 증가율은 19.2%로 창업자금 평균 19.5% 대비 0.3% 작다. 총자산증가율은 32.0%로 창업자금 대출기업 평균 25.6% 대비 6.4% 높다. 자기자본증가율은 33.3%로 창업자금 27.4% 대비 5.9% 높다. 결과적으로 청창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보다 성장성은 매출액 규모, 총자산 및 자기자본 증가율이 우수하다고 평가 되었다. 또한 안정성에 대한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원연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유동비율은 지원연차에 따라 증가 추세이나 평균 147.8%로 양호한 수준이다.¹⁹⁾ 이는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유동성 확대로 보여 진다. 이는 분석에 있어 중소기업실태조사, 2018의 자료를 인용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부채비율 역시 지원연차가 높아질수록 증가 추세로 이는 청년 창업자들이 정책자금에서 지원을 받고 또 다른 지원자금을 중복 받는 경우로 부채 비율 상승 요인으로 파악 된다. 예외적으로, 차입금의존도에 있어서는 1년차 대비 6년차의 경우, 8.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청창자금 대출에 대한 2~3년 거치기간이 끝나고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이 차입금의존도 비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분석 된다. 수익성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청창자금의 경우 지원연차에 따라 1년차 11.4%에서 6년차 8.7%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이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²⁰⁾에 의하면 3.96% 대비 양호하다. 활동성에 대한 총자산회전율은 정책자금 지원 연차에 따라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평균 1.43회로 창업자금 보다 0.69회 높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연구자의 분석결과 정책자금으로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타 창업자금과 비교

19) '17 중소기업 유동비율은 138.17%(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8)

20) '17년기준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3.9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8)

하여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에서 모두 재무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정책자금으로써 청년전용창업자금이 목적성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표 4-1]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재무성과 비교

재무지표		연차별 지원실적(백만원, %, 회)						평균/ CAGR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자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593.8	834.8	875.5	1,029.6	1,196.9	1,431.3	19.2%
		377.7	320.3	398.9	533.1	788.6	919.5	19.5%
	총자산 증가율	336.2	467.1	595.0	763.8	1,043.4	1,346.9	32.0%
		445.3	433.4	592.5	734.9	992.2	1,392.5	25.6%
	자기자본 증가율	105.9	151.2	196.8	246.5	353.0	445.3	33.3%
		219.3	211.0	296.4	385.8	536.2	735.2	27.4%
안정성	유동비율 (%)	131.7	143.0	155.6	135.9	150.9	169.5	147.8%
		-	-	-	-	-	-	-
	부채비율 (%)	262.2	246.7	233.5	235.6	219.0	211.3	234.7%
		138.2	144.5	133.4	121.0	108.8	106.5	125.4%
	차입금 의존도	63.1%	60.8%	57.2%	54.6%	57.4%	54.3%	57.9%
		-	-	-	-	-	-	-
수익성	매출액영업 이익률	11.4	10.3	11.0	11.0	9.8	8.7	10.4%
		-	-	-	-	-	-	-
활동성	총자산 회전율	1.77	1.79	1.47	1.35	1.15	1.06	1.43
		0.85	0.74	0.67	0.73	0.79	0.66	0.74

문헌자료 분석에서 검증된 창업가 특성, 창업기업의 특징, 환경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제로 자료분석을 하였다. 또한 정부지원금융으로써 정책자금을 매개로 상호 의존적 영향에 대하여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병권,2015)실무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창업동기의 유형과 정책자금

그리고 경영성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부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정책자금의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창업동기요소를 분류하여, 정책자금을 (이병권,2015)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상별 맞춤형 청년창업지원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이용한 기초자료는 전봉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영향분석’, 신채상, 나도성 공저의 ‘신나는 창업스쿨’, 김한원, 박원규의 ‘중소기업 경영론’의에서 창업요소들을 찾아 연구모델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성과에 대한 재무지표와 실적 자료는 중진공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는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을 자료에서 알 수 있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결과 요약

지금은 청년기업이 새로운 경제활동의 주체로, 국가차원에서는 청년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및 제공을 통해 창업 전 단계부터 창업 이후 단계까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상태 유지 및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자금의 집행 등 일부 운용방식에 개선을 거듭 하며 발전 되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청년 창업자의 성취 의욕을 고취하며 각종 경영 기술을 전수하는 지원제도로 꾸준히 성장 발전시키려는 정부정책금융이 청년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의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많은 주요소중 일부를 바탕으로 정책자금이 초기창업자와 창업기업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와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이 실제로 청년기업가와 기업성과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요소를 찾아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국가차원에서 지원한 정책들이 청년창업기업에 적합한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창업기업의 존폐가 1~2년 정도의 단기간에 갈리게 되는 창업기업의 상황에 비추어 사업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과 창업 초기 준비 과정에서의 교육 등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정책지원은 관심 활용이 적은 것으로 연구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수집한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만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본 연구자는 창업기업가의 특성이 정책자금과의 상호연계로 경영성과에 나타나는 효과를

찾고자 하였다. 청년창업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청년창업기업의 특징에서는 보유자원, 기술자원을 살펴보고, 환경적 요소로는 시장경쟁강도를 선행 연구와 수집한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요소들이 정부정책자금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이 경영성과와의 상호연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자의 특성은 모두 청년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자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단계별 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성은 청년창업자의 성취욕구가 발현 될수록 청년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료조사에는 나타나고 있었다. 청년창업기업의 사업 전략, 기획력, 독창적 아이디어와 같이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요소는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와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초기 매출형태가 지인 및 B to C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청년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는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창업기업의 특징에서는 모두 창업기업의 세부적 요인인 보유자원, 기술자원은 기업의 경영성과와의 효과는 적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경영자의 사업 수행 역량, 수행을 위한 시설, 자금보유 정도, 마케팅 역량에 대한 충분한 능력 보유와 기술개발 능력,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등이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나타나는 효과는 기업의 보유자원과 경영자역량 모두에서 한계점이 있었다.

셋째, 창업기업의 환경에서는 시장 경쟁강도는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와 연계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기에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정확한 재검증이 필요한 한계가 있었다. "

청년창업기업의 특징 중 인적자원과 기술자원부문에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각각의 해당 요소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확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더욱이 보유자원, 기술자원이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는 선행연구 자료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자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영자들이 가장 많이 인지하고 활용하는 정책자금 중 청년전용창업자금만 으로 한정하여 다른 많은 정책자금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제 2 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에게 정책자금 지원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사업에서 세부적이고 단계적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으나, 일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청년창업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자료들만으로 도출된 한정적인 요소만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창업기업의 주 요소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요소들이 정부정책자금이 경영성과와의 상호적 효과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둘째, 정부지원정책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부사업을 기반으로 정부지원정책의 효과를 모두 검증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앞에서의 많은 선행 연구들이 창업기업의 경영자 개인의 특성들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정부정책자금 관련 항목이나, 요소들이 부족하여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 하면서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 모두에게 기존의 지원방식을 보다 다양한 타 사업과 상호연계 하여 지원하면 경영자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청년창업자에게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와 보다 적극적인 타 사업과 상호 연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점은 정책자금이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점 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선행 연구 자료와 문헌자료만으로 실시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정책자금의 기업경영성과에서 나타나는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 공보성. (2015). 韓國의 中小企業 支援政策 比較 研究. 최신정책정보(국내)
- 김만형. (2013). 중소기업 경영주의 거래적·변혁적 리더십이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제조업체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논문
- 김민규. (2019). 중·고등학교 여자축구 선수들의 자기효능감, 중요타자의지지, 진로결정수준 간차이 및 구조관계 분석. 한남대학교 대학원
- 김범수. (2019).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효과 연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투융자복합금융과 융자의 성과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용남. (2005). 중소기업보호법제에 관한연구:중소기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 김성철. (2015). 중소기업 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중소기업 제조업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 김진수, 송은주, 마정화. (2007).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 김정환. (2005). 연구개발 투자활동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종현. (2015). 자기과시성향이 정보공유행위와 정보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 김홍태. (2009).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인력부족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의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 나희수. (2010).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 남시태. (2018). 중소기업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준비 정도를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복지대학원
- 박문영. (2019). 중소기업 경영자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 연구:멘토역량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
- 신우현. (2009).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 안미령. (2017). 중개사무소 개설 의사결정 요인 분석.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승권. (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 안태항. (2010). 소상공인의 배경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 양현봉, 박종복. (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오성진. (2016).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기록관리 컨설팅 개발에 관한 연구
- 유재복. (2012). 문헌정보학의 한계를 넘어서
- 윤성철. (201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중견기업구간 설정방안 연구
- 이병권. (2015). 창업동기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상한. (2007). 인터넷 중개상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창업 및 유통 전략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우진. (2017). 벤처창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 이종덕. (2015).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경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진혁. (2017) 청년창업멘토링이 멘토링만족도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 이현규. (2011).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간 디자인개발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형규. (1995). 중소기업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과 그 주요내용. 기업은행조사부
- 이화지식시스템연구센터. (2014).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방안
- 장동민. (2019). 1인 창조기업의 경영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정부지원정책을 조절변수로
- 전봉준. (2012).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자금의 영향분석.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 정책과평가(주). (2019).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 조유리. (2018). ICT 벤처 생태계의 변화 분석을 위한 패널 데이터 구축 및 정책 방향 연구[Ⅲ]
- 조중연. (2016). 소상공인 창업자의 개인적특성 및 창업준비 수준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 천기호, (2019). 소상공인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컨설팅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 하수현. (2018). 항공서비스 관련학과 교육과정 경험이 신입교육훈련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 Xu Yan. (2011). 한국중소기업의 중국진출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ABSTRACT

A Study on Youth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youth-only startup funds

Lee, Yean-Ho

Major in Management Consulting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In the meantime, policy funding has focused on macroscopic analysis. Therefore, there was a problem that there were limits to individual projects. Therefore, the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only for the 'Young Adult Entrepreneurship Fund', which clearl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fund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intended to suggest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to present the sound development and direction of policy funds, and to accumulate research data.

The study was conducted by collecting data from three perspectives.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start-ups we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resources and technical resources. Then, the company's external environment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erformance analysis of start-ups analyzes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s at the same time, and the financial performances use the data examined in a way that compares growth potential, stability, profitability, and activity using financial statements with other support funds. Also, non-financial performance was analyzed together.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ffect of support can be further enhanced by linking the “Young Adult Entrepreneurship Fund” of each business unit with other support projects. The funds have been the foundation for overcoming the fear of entrepreneurship for young entrepreneurs who are beginning their first steps as managers. It will be an effective support policy for start-ups by quickly responding to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The youth-only start-up fund was playing a role as a welcoming company.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literature information.

【Key words】 : SME policy fund, policy fund, youth-only entrepreneurship, youth entrepreneur, entrepreneur, start-up company, management performance, SME